



위산에 장 점막 ‘옴퍹’..속 쓰림 없어도 주의를

매경 이코노미 2017-5-17



소화성 궤양은 헬리코박터균 감염이나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복용이 원인이 돼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약물 치료 기간 중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는 이들도 있는데 꼭 증상이 없다고 병이 모두 나은 것이 아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최영재 기자>

서은내 기자 thanku@mk.co.kr

위나 십이지장 점막이 마치 샴으로 땅을 판 것처럼 파이는 소화성 궤양. 생활이 불규칙하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은 한 번쯤 겪게 되는 질환이다.

소화성 궤양이 있는 이들은 위쪽 배나 명치 부위가 타는 듯한 느낌이 있거나 속 쓰림과 함께 가슴앓이 등의 증상을 주로 호소한다. 이런 증상은 보통 30분에서 3시간 정도 계속되는데, 식후 30분쯤부터 이 같은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식욕 감퇴나 소화불량, 상복부 팽만감, 구토 등도 소화성 궤양의 대표적인 증상. 초기엔

위장 출혈이 나타나기도 한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속 쓰림과 같은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위궤양도 있다. 증상이 다양한 만큼 소화성 궤양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위 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화성 궤양은 위산으로부터 위점막을 보호해주는 위 점액이나 중탄산염 등의 물질 간 균형이 깨져서 발생한다. 주된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이 꼽힌다. 헬리코박터에 감염되면 위 점액 분비가 감소하고 십이지장의 중탄산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모든 소화성 궤양이 헬리코박터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 아니다.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복용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쓰면 위 점액 분비나 십이지장 중탄산염 분비가 감소한다.

김도훈 교수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사용은 흔히 위장관 출혈이나 협착 등 소화기계 합병증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고령화, 근골격 관련 질환 증가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에 따른 위장관 질환의 발병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밖에 흡연, 음주 등도 소화성 궤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속 쓰림 방지 차원에서 우유를 먹는 사람들이 있다. 흔히 우유가 알칼리성이라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점막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짚었다.

우유는 알칼리성보다는 중성에 가까우며 우유 속 칼슘 성분은 오히려 위산 분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우유가 다른 음식처럼 위 점막을 감싸주므로 마시고 나면 잠깐 동안 속 쓰림이 완화되는 듯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위산이 축진돼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소화성 궤양으로 진단받으면 우선 약물 치료를 하게 된다. 며칠간 약을 복용하고 속 쓰림 등의 증상이 없어지면 궤양이 모두 치료된 것으로 생각해 치료를 중단하는 이가 많다. 반대로 치료가 다 됐는데도 증상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계속 약을 먹기도 한다. 둘 다 잘못된 것이다. 위궤양의 호전과 증상이 항상 일치하진 않기 때문이다. 위궤양 환자들은 약물 치료를 마친 후 꼭 추적 검사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음식물을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은 위산 분비를 지속시키므로 소화성 궤양에 좋지 않은 습관이다. 야식 역시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궤양 증상을 악화시킨다. 약물 치료만으로 빨리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죽과 같은 자극이 적은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알코올 섭취는 그 자체로 산 분비를 촉진시키며 특히 고농도 알코올은 점막에 직접적인 손상을 끼친다. 흡연은 궤양 치유를 지연시키며 재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금연이 필수다.”

김 교수의 당부다. ■